

전북중기청, 전통시장 활성화 '성과'

전북중소기업청은 올 한해 도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자체 점검한 결과 전년도와 비교해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전통시장에 양적·질적인 성장이 기인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성과를 보면 다양한 전통시장 시책 추진 영향으로, 우선 전통시장 활성화의 가장 근간인 온누리상품권의 판매액이 517억원으로 전년(400억원) 대비 30%(117억원) 증가했다.

전통시장 공모사업은 신청시장 발굴부터 전국심사 대비까지 전략적인 접

온누리상품권 판매액 517억 전년대비 30% 증가 전국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도내 2곳 선정

근과 노력으로 알짜 사업들에 전북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17개 시도)에서 22곳을 선정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전북에서 2곳이 선정돼 시장별로 3년간 18억원을 지원받고, 전국에서 16곳을 선정한 청년물조성사업도 전북에서 2곳이 선정돼 시장별로 15억원씩을 지원 받게 됐다.

또한, 명절을 맞이해 대형마트의 동반상생 협조 등을 통해 민관합동 협업으로 도내 6개 시 곳곳에서 동시다

발 대규모로 개최한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현장 캠페인도 고객들의 전통시장 유인 및 지역 기관·단체 등의 전통시장 활성화 동참 불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이밖에도 도내 대표기관들의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및 전통시장 이용 동참을 이끈 업무협약(MOU) 체결, 평소 전통시장 이용 적극 실천의 불 조성 선도를 위한 매주 전북청 직원들의 전통시장에서 점심하는 날 운영,

전통시장 K-Sale 페스타 및 가을 여행주간 연계 전통시장 방문 집중 홍보 등 많은 노력이 있었다.

전북중기청 정원탁 청장은 "우리청은 올 한해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사기진작과 고객 발걸음을 전통시장으로 유인토록 선제적으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준비되는 가운데, 이러한 사업들에 전북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전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인재용 기자



전북은행은 지난 13일 본점 3층 로비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방한복 나눔' 포장행사를 실시하고,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00여벌의 방한복을 전달했다.

전북銀, '사랑의 방한복 나눔행사' 실시

전북은행은 지난 13일 본점 3층 로비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방한복 나눔' 포장행사를 실시하고,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00여벌의 방한복을 전달했다.

'따뜻한 겨울나기' 릴레이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과 대학생봉사단 30여명은 패딩점퍼와 아동내의 등 방한복을 박스에 일일이 포장하고, 독거노인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방한

복과 생필품을 함께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쳐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은 "입직원이 참여해 마련한 방한복을 통해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사랑의 온기가 전해질 바란다"며, "전북은행에서는 연말연시 소외받는 이웃들이 없도록 다양하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연말을 맞이해 방한복, 김장, 연탄, 겨울이불 나눔 등 소외계층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며 이웃사랑에 앞장 서고 있다. /인재용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는 14일 전북중소기업청 대회의실에서 '공공구매 촉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원탁 전북중소기업청장, 임중식 전북조달청장, 유희숙 도 경제산업국장, 홍용웅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박병모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담당자, 중소기업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중기중앙회 전북본부 '공공구매 촉진대회'

중기제품 판로확대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는 14일 전북중소기업청 대회의실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전라북도 공공구매 촉진대회'를 개최했다.

공공구매촉진대회는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전북에서만 개최되는 행사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제도 활성화를 통해 전북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8 회째를 맞고있다.

이날 행사에는 정원탁 전북중소기업청장, 임중식 전북조달청장, 유희숙 도 경제산업국장, 홍용웅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박병모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담당자, 중소기업인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전북지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확대를 통한 판로지원 등 구매실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시상에 이어서 공공기관, 지자체 참석자들은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토의하고,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여 도내 중소기업 판로 지원 성과를 제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의 시간을 가졌다.

중기중앙회 현준 전북본부장은 "최근 경제상황이 지역 중소기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각급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소기업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다양한 공공구매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바란다"며 "지역 공공기관들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가 경영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 롯데레, 인보 복지센터 방문 저소득층 생필품 전달

롯데백화점 전주점 사루테 봉사단은 14일 허그데이(hug day,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는 날)를 맞이해 인보 노인 복지센터를 방문, 지역 내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복지센터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콩주머니를 던져 박을 터트리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고 복지센터에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생진원, 농식품산업 고용안정화 전략 토론회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14일 식품산업 고용안정화를 위한 전략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는 고용노동부 고광훈 전주지청장, 전북도, 국가식품롤러스터, 전북대학교, 우석대학교, 김제자영고,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전주 여성인력개발원, 대두식품, 참바다(영) 등이 일자리 발굴 및 고용안정을 위해 참여했다.

특히 기업과 교육생간의 이견에 의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방안과 취업률 저하 원인 등을 주제로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모여 전략 토론회를 가졌다. /인재용 기자

도내 45개 동네슈퍼 18일까지 '공동세일전'

전주, 군산, 남원지역 등 도내 45개 동네슈퍼들이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공동세일전에 나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18일까지 7일간 전국 동네슈퍼에서 특가(50% 할인) 상품을 판매하는 '2016년 연말 동네슈퍼 공동 세일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동네슈퍼 공동세일전에 참여한 점포의 매출은 미 참여한 점포보다 행사기간 동안 일평균 28만원 가량 매출이 높았다.

이번 공동세일전은 겨울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12개 단체 1,000개 점포가 참여해 동네슈퍼 공동세일전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원 단체인 맞춤형 행사상품 및 고객사은품 구성으로 지역별로 상이한 소비자들의 성향을 최대한 반영했다. /인재용 기자

미래 안전 먹거리 책임진다

현미에 저온 플라즈마 처리 미생물 34% 이상 감소

저온 플라즈마기술을 적용하면 현미 및 쌀 가공제품의 품질 및 위생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온 플라즈마 기술은 종자 발아, 생장 촉진, 기능성 활성화, 토지활용 극대화 등 원료 생산 및 재배환경 분야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 웰빙을 추구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친환경 농산물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식품 생산·저장·유통 과정에 플라즈마를 적용하는 기술이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농식품에 적용하는 플라즈마 기술은 저온에서 활성화전자, 자외선 등으로 살균을 하는 방식이며, 식품의 저장 및 유통에 적용하더라도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다.

농촌진흥청의 이번 연구에 사용한 저온 플라즈마는 산업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플라즈마 가스를 직접 처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사용한 저온 플라즈마는 소

량의 가스를 주입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저온 플라즈마는 기존보다 처리량을 늘리고 가스를 직접 이용했다.

현미 및 전식제품에 저온 플라즈마를 20분 동안 처리하면 미생물이 34% 이상 감소해 위생 안전성이 높아진다.

수분흡수율은 약 5% 높아지고,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인 알파-아밀레이즈 활성도 최대 20.6% 까지 증가돼 밥을 지었을 때 식감도 부드러워지고 소화율이 높아진다.

농촌진흥청 김선립 수확후이용과장은 "저온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하면 현미 등 쌀 가공품의 품질 및 위생 안전성이 올라가 국내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면서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국산 식량작물 원료곡과 가공품의 품질 및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재용 기자